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37 -

“우리 아이들이 제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공약 발표

- 코로나19, 아동 발달지연에 영향... 정부 발달평가 사업 문진 위주 한계
-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화, 정밀검사 진료 및 상담비용 지원 확대로 발달지연 조기 발견과 예방 등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37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기본으로, 전문 상담원의 아동 발달 프로그램 운영과 발달 정밀검진 지원금액 확대 등이 주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발달지연 문제를 겪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도움을 통해 장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지만 심한 발달장애가 아니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부 차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문진 위주로 되어 있어 한계가 있고, 매년 4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심화평가 권고’를 받음에도 실제 정밀검사나 상담, 치료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작년 3월부터 진행 중인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공약으로 전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상담·치료 연계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발달검진 정밀검사 진료와 상담 비용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2021년 소득 하위 50%에서 2022년 하위 70%까지 확대되지만,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각 사업대상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액 상한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 자격을 갖춘 발달지원상담원을 채용해 다양한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측은 발달지원상담원의 안정적 고용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적 정책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취하고 각 상담원에게도 경험 축적과 역량 발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이 운영할 발달프로그램은 모든 아동이 발달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로 아이들의 활동이 제약돼 발달이 더디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면서, “국가가 제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꼭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2021년 3월부터 도내 각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층 구분 없이 무료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 등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다.

경기도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발달지원상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발달상 어려움이 발견된 경우 심리 및 정서지원, 심층검사 등을 전담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영유아기에는 뇌가 성장하고 신경망이 형성되는 만큼 발달지연의 경우 조기 발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가구에 지원되는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으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2630-0004

□ **[붙임] 설명자료**

1. 참고 및 데이터 자료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0세~6세) 아동수 대비 등록 발달 관련 장애아동수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체 아동수	315만3489명	304만4577명	290만4953명	272만6967명	256만2100명
장애 아동수	1만63명	1만1813명	1만2260명	1만2632명	1만2864명
비율	0.35%	0.39%	0.42%	0.46%	0.5%

주) 장애 아동수는 전체 장애 유형을 포괄한 숫자가 아닌, 발달과 관련된 지체,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뇌전증 유형만을 합한 숫자임.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결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양호	168만6113명	164만5387명	160만9126명	156만7307명
추적검사요망	18만219명	18만6529명	21만0276명	21만1687명
심화평가권고	3만2032명	3만4172명	3만8533명	4만0099명
지속관리필요	8486명	9157명	9573명	10465명
기타	2727명	676명	382명	86명
계	190만9577명	187만5921명	186만7890명	182만9644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2016~2019

○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신청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상자	6666명	6736명	7015명	8117명	1만3501명
신청자	896명	1062명	852명	1076명	1881명
신청률	13.4%	15.8%	12.1%	13.3%	13.9%

출처) 전봉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사업 지원체계

<관찰과 발견>

- 전체 영유아 또는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평가 및 지원에 대한 보호자 동의 확인
- 영유아에 대한 발달 파악
- 관찰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영유아의 기질 관찰
 - ①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확인
 - ② 연령별 발달의 적신호 체크
 - ③ 온라인 발달체크리스트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사업 지원의뢰서 작성
 - *교사가 ①, ②, ③ 중 하나를 점검하여 작성 → 발달지원상담원의 조력



발달상 어려움이 없는 경우

- 심층검사와 치료지원 필요 없으며, 정기적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의 발달평가 결과 확인
- 보호자, 교사가 판단을 의뢰한 배경,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지원



발달상 어려움이 발견된 경우

<선별>

- 선별검사 및 영유아 관찰 실시
- *발달지원상담원은 선별검사에 대한 보호자 동의 여부 확인, 선별검사 도구를 교사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검사결과와 영유아관찰 결과를 교사와 보호자에게 안내

기관부적응
영유아의 발달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문제

장애위험영유아
영유아의 사회·정서·인지·행
동적 문제가 심각하여 발달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맞춤형 발달지원에 대한 안내
- 교수지원
- 행동지원(심리·정서)
- *발달지원상담원 →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위험 영유아 교사 교육 필요

- 상담 및 지원 수준별 개입
- 보호자 상담 후 유관기관 정보 안내
- *발달지원상담원은 전문기관 매칭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계기관 목록을 작성, 심층검사 및 치료 지우너 기관 정보 안내

<사후관리>

- 약 6개월 동안 사후관리 실시
- *발달지원상담원이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하여 심층검사 및 치료지원 실시여부 안내

○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사업 개요

- 관련 근거 :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2021. 7. 14 제정)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12월
- 예산액 : 1,208백만원(시군비 50%, 도비 50%)
- 사업 내역 : 발달지원 상담원 30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
 - * (상담원 자격기준) ① 보육교사 1급, ② 보육관련 석사취득 후 1년 보육업무, ③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3년 보육업무 중 1개 해당되면 충족
- 수행기관 : 도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추진 실적

구 분	신청(명)	'21. 10월말 추진실적(명)			
		합계	상담종결	치료연계 종결	진행 중
어린이집	2,113	2,735	1,241	225	1,269
가정	622			(정서관련 35, 언어·발달지원 190)	

-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22년도	비고
계	1,208	1,536	현재 '22년도 본예산 심의 중으로 최종의결에 따라 예산이 변동 될 수 있음
인건비	966	1,236	
사업운영비	242	300	

※ '21년도는 신규사업으로 10개월 분 예산만 반영되었으나, '22년도는 1년 예산 반영 및 일부지역 센터 개소(양평)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